우암학원 창학 71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762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23일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민주-국민의힘 '기선 잡기' 총력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휴일 군소정당 이색 유세로 눈길 잡기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 주말과 휴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 후보들은 '기선 제압'에 총력을 기울이며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썼다.

특히 텃밭을 사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불모지인 광주·전남에서 선전을 노리는 국민의힘이 중앙당 인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선거운동 초반 기선 잡기에 나섰다. 무소속 후보들과 소수 정당 후보들은 톡톡 튀는 이색 유세를 펼치며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주력했다.

전국적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은 '한 사람만 있어도 찾아간다'는 각오로 주말과 휴일 시민들이 몰리는 전통시장과 유원지, 공원 등을 찾아 집중 유세를 펼치며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는 21~22일 이틀간 양동과 말바우·대인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집중 유세를 펼치면서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표심 잡기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강 후보는 '듣는다 유세단'과 함께 '마이크를 드립니다' 유세를 진행중이다. 후보의 일방적인 목소리를 전하는 유세 보다 '경청'과 '시민 참여'에 초점을 맞춰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20일에는 광주 서구 상무역 일원에서 김이강 서구청장 후보와 서구 선거구 광역·기초의원 후보들과 함께 '찾아가는 정책 소풍' 유세를 펼치며, 시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날 시민들은 녹지공간 확보, 소상공인 지원정책, 문화힐링 공간 확대, 관광 인프라 확대, 청년 인구 유출, 인재양성 방안 등을 요청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잇따른 당 소속 기초의원 후보들의 '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하자, 이준석 당 대표가 20일과 21일, 연 이틀 광주를 찾아 직접 현수막 교체를 하는 등 '광주와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며 표심을 파고 들고 있다. 이 대표는 현수막 교체작업 후 "국민의힘이 광주와 호남을 향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현수막이 훼손될 때마다 와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이 광주시민을 위해 끊임없는 도전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도 지난 20일 새광주발전협의회, 나라사랑 무궁회 등의 단체로부터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지지세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유권자들과 접촉을 넓히는 선거운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21일에는 광주시민들이 많이 찾는 무등산 증심사 일대와 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 조선대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 사람, 광주사랑'을 내세우고 있는 주 후보는 페이스북 등 SNS에 "민주당때 변한 것 뭐 있냐?"면서 '일당 독점' 폐해 지적과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글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도 공략하고 있다.

정의당 장연주 후보는 강은미 국회의원과 이틀간 광주 전역을 돌며 거리 유세를 중점적으로 펼쳤다. 이들은 "민주당 '일당 독점'인 광주에서 정의당이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진보당 등 군소정당, 정치신인들은 각종 소품 등을 동원한 이색 유세를 펼치며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전남지역 동부권을 비롯, 중·서부권을 부지런히 오가며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과 합동 유세를 통한 지지세 확산에 주력했다. 김 후보는 주말과 휴일인 지난 21일과 22일 나주를 시작으로 장흥, 해남, 영암, 진도, 무안 등 전남 중부권과 서부권을 차례로 돌며 집중유세를 펼쳤다.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는 주말에도 오전 7시 목포 유세를 시작으로 영암~강진~장흥~보성~순천~곡성~담양(21일), 진도~해남~완도~광양(22일) 등을 오가는 강행군을 벌이며 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민점기 진보당 전남지사 후보도 지난 21일 금속노조원들의 동부권 단합대회와 플랜트여수지부의 임단협 출정식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노동자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최권일·김지을 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예술 꿈나무들의 무대…호남예술제 화보 ▶11면
최미선 양궁 월드컵 여자 리커브 금메달 ▶18면
한국의 서원-'문불여장성' 필암서원 ▶22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함께 방문해 한미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 "핵에는 핵으로 대응"

미국 공군기지 방문 장병 격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를 찾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관련기사 3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산기지 내 '지하벙커'인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미 간에 강력한 안보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공우주작전본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항공우주작전본부는 이른바 3축 체계를 운용하는 중심이고 그 통제의 중심 기관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바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가장 먼저 교전한 미군 부대인 스미스 특임대가 오산시에서 싸운 사실을 언급하며 "미군이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위해 최초로 피를 흘린 곳이 바로 이 오산 인근"이라고 밝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여러분은 서로에 대한 양국의 헌신, 한미연합군, 한국전쟁에서 공동의 희생을 통해 맺은 한미동맹의 힘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덕분에 한국은 (한국전쟁)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강하고 번영하며 혁신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우리 동맹은 날마다 더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2일 오후 오산 공군작전사령부 내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작별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2시25분께 작별 인사를 나눴고, 바이든 대통령의 차량이 떠날 때 두 정상은 서로를 향해 엄지척 인사를 건넸다고 대변인실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산 공군기지 미군 장병들을 격려한 뒤,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배웅을 받으며 2박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떠났다.

이에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핵'을 못박는 강수를 뒀다.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을 천명한 것으로, 최근 핵 공격 위협 단계를 끌어 올리는 북한에 대한 공고한 한미 연합 대응 태세 과시와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공동성명의 특징은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낮 최고 33도 빨리 온 여름

일교차 커 건강관리 주의를

이번 주 광주·전남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 날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25일 광주에서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고기온이 30~31도를 기록, 평년기온 23~27도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22일 예보했다.

특히 순천, 구례 등 전남 동부지역은 한때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고기온 33도를 웃도는 더위가 장기간 이어지진 않아 폭염주의보 가능성은 없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26일부터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 전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 중 비가 올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최고기온은 22~26도로 더위도 한 풀 꺾일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투표로 밝히는 온 동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
일시: 6월 1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지정된 투표소
투표안내문 또는 내 투표소 찾기(nec.go.kr)에서 확인 가능

사전투표
일시: 5월 27일(금)~5월 28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가능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선거정보 등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바로가기
nec.go.kr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선거 알아보기!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7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방의원: 시·도 의원선거(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지역구), 시·도 의원선거(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선거(비례대표)
지방교육자치: 교육감선거
세종시(4장): 교육감, 시장,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
제주도(5장): 교육감, 도지사, 교육의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
• 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에서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 (전국 11개 국회의원선거구)
※ 투표 시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함
교육감선거 더 알아보기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며 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별로 후보자 이름 배열순서가 바뀝니다.
※ 세종시와 제주도는 시·도의원 지역선거구별로 순차 배정

투표소 가기 전, 정책·공약 확인하기!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 방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후보자토론회 시청

투표소 갈 때 꼭 챙기기!
신분증과 마스크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단, 화면 캡쳐 등 저장한 이미지 불가)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많은 인력과 장비, 시설이 일시에 동원되며 3천여 명의 선관위 직원뿐만이 아니라 투·개표 사무 종사자, 참여하는 유권자 그리고 정당·후보자까지 모두 함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 선거사무 필요 인력: 사전투표 약 10만 명, 선거일 투표 약 19만 명, 개표 약 9만 명
* 선거사무 필요 시설: 사전투표소 약 3,500 개소, 투표소 약 14,500 개소, 개표소 약 260 개소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정치인의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